

경계 (警戒)

얼마전 손님의 도움으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한달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니 무엇이 그토록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검사나 고문 경찰, 판사는 무슨 <계>를 갖고 있길래 저렇게도 자신들의 잔인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었을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면 저렇게 인면수심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배운자들이고 사회 지도층이고 가진 자들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인간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배우고 공부한 범주 내에서, 자신이 듣고 본 범주 내에서,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이념이나 종교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계 (戒)>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것을 관념 (觀念)이라고도 한다. 그 <계>에 선을 긋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피아(彼我)를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한다. 경계 (警戒)라 함은 내 스스로 정해놓은 <계>를 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할 것을 이르는 말이다. 술이 과하면 화를 부르니 술잔의 7 할이 넘으면 넘쳐 흘러 내리게 만든 잔이 계영배 (戒盈杯)다. 소설 <상도>에도 나오는 이야기다. 술을 인간의 욕심으로 비유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또 중국 격언에 호구지계 (狐丘之戒)라는 말이 있다. 남에게 원망사는 일이 없도록 잘 경계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계>가 어찌면 잘못된 <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또한 올바른 <계>라고 할지라도 너무 그 <계>에 구속되어 버리면 율법적인, 고지식한, 고착화된 삶으로 응고된다.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그러한 <계>의 경계선에 구속되어 사는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으로 나누거나, 배운 자와 못배운 자, 학연과 지연, 믿는 자와 불신자, 주류와 비주류, 보수와 진보, 아군과 적군 등등 수많은 <계>속에 나 자신을 구속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다른 <계>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들을 단죄하고 거부한다. 영화에서도 변호인이 그 사건을 우연한 기회에 맡지 않았다면 그 서민들의 애환과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은 우리도 모르게 가공되거나 거짓된 정보일 수 있다. 지배자들은 그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고, 죄없는 민중을 속이고 유린한다. 하지만 지배자는 그들이 직접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출세하고 싶어하는 같은 민중들에게 대역을 맡긴다. 그래서 민중은 민중끼리 죽이고 죽는 일이 반복된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다.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은 언젠가는 계란이 이길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바위는 아무리 커도 죽은 것이며, 계란은 아무리 작아도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누가 죽은 자이고 누가 산 자인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우리는 배웠다. 대학생때 운동권이었거나 노동혁명가라고 자처하던 자들이, 혹은 명문대학 수재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갈수록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 그들은 권력 앞에서는 죽어야 산다는 <계>를 나름대로 깨우친 것이다. 배웠다는 식자층도 모든 판단을 자신의 지식이라는 <계> 범주내에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한다. 아니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다. 머리로 공부하는 법은 배웠지만 가슴으로 사랑하고 아파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이다. 시험 잘치는 법은 배웠지만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까지의 <계>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하여 또 다른 <계>를 쌓고, 스스로 겹겹이 쌓아 놓은 <계>로 인해 그 속에 파묻혀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계>를 벗어버리면 <자유인>이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외면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이 <계>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역설이다.

서머셋 모험의 <사자 가죽(Lion Skin)> 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 제목은 이솝 우화에서 빌려온 것이다. 동물의 왕 사자를 부러워하던 당나귀가 우연히 사냥꾼의 집에 걸린 사자 가죽을 발견하고 사냥꾼이 집을 비운 틈에 그것을 훔친다. 훔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가 사자 행세를 하자 다른 동물들은 겁에 질려 도망을 간다. 계속 하다보니 당나귀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사자가 당나귀 소리를 내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동물들은 숨어서 자세히 보니 이놈은 사자가 아니라 당나귀임을 알아차린다. 결국 당나귀는 동물들에게 몰매를 맞고 그 동네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다.

세상은 소수의 지배자가 대부분의 부와 권세를 장악한다고 한다. 세월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성벽은 높아진다. 사자는 당나귀들의 삶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사자 가죽을 쓰고 있는 당나귀들은 가난한 자도 아니요, 못배운 자들도 아니다. 흔히들 엘리트 계층이고 배운 지식층이다. 서민 당나귀들을 직접 괴롭히는 자들도 그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당나귀일 뿐이다. 다만 가짜 사자는 너무 오랜 세월동안 가짜 행세를 하다보니 가짜라는 사실을 잊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내가 당나귀인지, 가짜 사자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참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계>는 지켜야 할 <계>가 아니라, 벗어나야 할 <계>가 아닐까. 이 세상의 유일한 <계>라고 하면 <모두를 사랑하라>라는 그분의 <계> 하나뿐이다. 그분은 우리가 물처럼 바람처럼 아무런 구속 없이, 함께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시는게 아닐까..